



연중 제28주일 (10월 9일)

나병 환자 열 사람을 고쳐 주시다 (루카 17,11-19)



나병환자의 기적 코시모로셀리, 1481-1482년, 바티칸 시스티나성당 소장

오늘 복음에서 열명의 나병환자 중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훔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루카 17,17-18) 모든 사람은 어떤 처지에 있든 하느님의 모상이며 이 세상에 하느님을 증언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하느님의 영광이 사람 안에 반사되어 『생명의 복음』 34항 참조) 빛나고 있습니다. 나병환자의 치유는 그를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지영현 시몬 신부(서울대교구) (출처 : 서울주보, 2013. 10. 13.)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480번 “믿음으로” 를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피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루카 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11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래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12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열 사람이 그분께 마주 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13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14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15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16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17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훔은 어디에 있느냐? 18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19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루카 17,13)

주님의 자비를 굳게 믿으며 주님께 자비를 청하는 기도를 즐겨 바치십니까?

† “그런데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루카 17,17)

주님의 손길,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은총에 무감각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나병은 지금도 무서운 병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못 고치는 병이었기에 걸리면 추방되어야 했습니다. 그런 환자 열 명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성을 익히 들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고쳐 주시기를 애원합니다. 그래서 기적의 은총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절박한 상황을 연상시킵니다. 기적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신앙인 가정 안에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막막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 온 가족이 기도 매달렸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신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고통의 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이것 역시 인간이 사는 모습입니다.

복음은 이러한 보통 인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돌아와 감사를 드린 그 한 사람입니까? 좋아하며 떠나 버린 아홉 사람에 속합니까? 감사하며 왔던 이는 또 다른 은총을 받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로 인도합니다. 감사 그 자체가 은총이고 복입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438번 “주께 감사드리자” 3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